

농촌진흥청, 지식재산의 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수상

- 4일,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서 국립축산과학원 이기원 박사 수상
- ‘알팔파’ 신품종 개발로 신품종 유전자원 분야 우수 성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9월 4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국립축산과학원 이기원 박사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 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의 날(9.4.)을 지정해 분야별 우수연구자를 선정하고 있다.

신품종 유전자원 분야 수상자인 이기원 박사는 국내 최초 ‘알팔파’ 품종을 개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풀사료의 여왕(Queen of Forages)’으로 불리는 ‘알팔파’는 생산성이 우수하고 사료가치가 높아 국내 젓소와 한우 농가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2015년부터 국내외 ‘알팔파’ 유전 자원 44품종을 수집하고, 인공교배와 우수 형질 선발을 통해 국내 기후 환경에 적합한 ‘알파원’과 ‘알파킹’ 품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

현재 종자 생산 전문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등 국산 종자가 농가에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알팔파’ 생산 기반 확대에 힘쓰고 있다.

국내에서 ‘알팔파’를 생산해 수입 물량을 50% 대체할 경우, 연간 약 5,200만 달러(약 680억 원, 2023년 4월 환율 기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기원 박사는 “국내에서 개발한 ‘알팔파’ 신 품종 보급과 재배 확대를 통해 수입 건초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로운 품종 개발에 더욱 매진해 가축 사료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7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초지사료과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1-580-6740)
		담당자	연구사	이기원 (041-580-6757)

□ 추진 배경

-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지식재산 강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식재산의 날」 지정
 - ※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의 2(지식재산의 날) 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4일을 지식재산의 날로 정한다.(18.6.20. 시행)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4. 9. 4(수) 11:00~ /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6F)
- (참석자) 이광형 공동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최수진 의원(과방위), 지재위 민간·전문위원, 관계부처,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장, IP관련 협·단체장, 지식재산 유공자 표창 수상자(23명+1기관) 및 가족 등
- (주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행사 주제·슬로건

- (주제) 국민과 함께 창의적인 대한민국 지식재산의 자부심을 느끼고 공감하다.
- (슬로건)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RICH KOREA, 지식강국 대한민국!

□ 기념식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내용	비 고
11:00 ~ 11:05	5' ■ 오프닝 영상 상영 및 행사 안내	지식재산의 의미 및 응원 메시지
11:05 ~ 11:10	5' ■ 내빈소개 및 국민의례	
11:10 ~ 11:12	2' ■ 주제영상 상영	지식재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
11:12 ~ 11:15	3' ■ 기념사	※ 공동위원장
11:15 ~ 11:25	10' ■ 축 사	※ 국회의장(영상) ※ 과기정통부 장관 ※ 지총회장 및 최수진 의원
11:25 ~ 11:37	12' ■ 기념공연 및 세레모니	캘리그래피 공연, 직인 퍼포먼스
11:37 ~ 12:00	23' ■ 지식재산 진흥 유공자포상(24점) (국무총리 1, 지재위 9, 관계부처 14)	※ 공동위원장 등 시상